2/7/21

설교 제목: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8 장 1- 30 절

(창 38: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 38: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창 38: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창 38: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창 38: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 38: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 38: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 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절관주] 마 22:24

(창 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절관주] 신 25:6

(창 38: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창 38: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절관주] 레 22:13

(창 38: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창 38: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절관주] 수 15:10

(창 38: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절관주] 잠 7:12

(창 38:15)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 38: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창 38:17)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창 38: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 38: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창 38:20)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창 38:21)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 38: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창 38:23)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창 38:24)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창 38:25)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창 38: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 38: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창 38: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창 38:29)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창 38:30)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신약 성경의 맨 첫 장인 마태 복음 1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 1: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족보에는 보통 여자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이 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여인들 중 하나인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야곱의 아들 유다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거룩한 성경에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나아가 이들 사이에 낳은 아들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물없는 울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 하자 설득하여 은 20 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팔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니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건 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창 38: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 38: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창 38: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창 38: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창 38: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를 추측해 보면 동생 요셉을 구하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시치미 뚝떼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을 보기 싫었던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기가 괴로워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가 형제를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자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이방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엘이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창 38: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 38: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장자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당시의 제도를 따라 차자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계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창 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 결혼이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당시 과부가 된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은 계대 결혼을 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집안에 남거나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난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계대 결혼을 하긴 했으나 자신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 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창 38: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형의 대를 잇기를 거부한 이유는 재산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아들이 없어야 상속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까요.

오난은 유다 가문의 씨를 잇는 마땅한 도리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회피했습니다.
그럴러면 처음부터 형수를 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수를 취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보시기에 악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들여 두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하나 걱정이 되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창 38: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아들 셀라가 정성했음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장사한 후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깍기 위해 딤나로 올라갔고 이 사실을 누군가가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창 38: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창 38: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 옷 대신 창녀 옷으로 갈아 입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창 38: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자신을 부르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며느리인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창 38:15)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 38: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기간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외로운 가운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창녀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는 점점 죄에 깊숙이 빠져 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으며 다말과의 약속을 파기했고 이제는 창녀와 잠자리까지 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따라서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화대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여 받아냅니다.

(창 38:17)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창 38: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 38: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담보물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창 38:20)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창 38:21)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 38: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창 38:23)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에 누군가가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사르라고 명했습니다.

(창 38:24)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 다말이 사람을 시켜 시아버지 유다 앞에 보관하고 있던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내놓았고 유다는 그것들을 보고 며느리 다말이 자신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 38:25)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창 38: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했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용기 있는 결단은 결국 며느리 다말과 그 뱃속에 있던 두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 이버지 집 형제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떨러졌을 때 형제들과 같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같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이런 부끄러운 인물들을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가문이나 개인이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 왔을 때 하나님은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이며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